

삼 · 보 · 일 · 배

김 은 남 / 시사 저널 문화팀장

산 사 수련회에 간 일이 있다. 취재차 간 수련회였는데, 행사를 주최한 절의 주지스님 왈 “취재한다고 괜히 튀지 말고 김기자도 일반 참가자들 속에 섞여 진정한 자기 자신을 한번 만나 보소” 하시는 것이었다. 딱은 맞는 말이다 싶어 그렇게 했다.

문제는 수련회 마지막 날 하게 돼 있는 일천 배였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남녀노소 백여 명이 일제히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쳇말로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때까지의 나는 제사 때나 초상집 문상 갔을 때 말고는 절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래도 별 걱정은 하지 않았다.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삼천 배씩 잘도 하던데, 뭐’ 하며 시건방진 자만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스무 배를 넘기기 전에 벌써 내 몸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두 무릎과 두 팔꿈치, 그리고 머리 이렇게 다섯 군데를 땅에 닿게 하는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행할 때마다 이마에는 땀 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오십 배가 넘으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일백 배가 넘으니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백 배를 넘길 즈음에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정말이지 굴뚝 같았다. 삼백 배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비몽사몽,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그런 것도 ‘무념무상’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5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나로서는 삼보일배(三歩一拜)라는, 우리 사회에 새

로 등장한 문화적인 저항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삼보일배는 본래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불가의 전통적인 수련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산하가 마구잡이 개발로 파괴될 위기에 처한 것을 보다 못한 종교인들이 거리에서 삼보일배를 실천하고 나선 것이었다. 지난해 삼보일배를 처음 제안한 지리산 실상사의 수경스님은 올해 7월에도 북한산에 관통도로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종교인 일행을 이끌고 서울역에서 조계사까지를 삼보일배로 행진했다. 서울역에서 조계사면, 택시로 10분이면 가는 거리다. 그런데 삼보일배로 그곳에 가는 데는 무려 5시간이 걸렸다. 이 긴긴 시간, 일행은 한여름 땀방울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로 묵묵히 자신의 몸을 내던지며 결국에는 하나 둘 탈진해 쓰러져 갔다. 세 걸음에 한 번씩 만신창이가 된 몸을 낮추는 스님들의 고행은 길 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영혼을 움직였다.

이를 보며 나는 문득 간디를 떠올렸다. 프랑스의 저명한 언론인인 기 소르망은 간디주의가 21세기 ‘제4의 물결’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자리한 빈부격차와 정신적 공허감에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 정신에서 ‘자기를 완성하고, 나아가 사회를 완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예언이었다.

비폭력은 폭력보다 강하다. 우리는 이를 삼보일배라는, 일찍이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문화적인 저항으로 만방에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